



불교 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1년 11월 5일
음력 10월 10일

일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 144호

불교 총지중 40년, 화합과 도약의 화음으로 천상을 울린다.



▲ 총지중 연합합창단의 '총지인의 노래'

불교 총지중 40년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2,000여 명의 국내외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예술제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동참을 바라는 불자들이

모여들어 대성당을 이루었다. 1부 통일 노래에서는 미디어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피가로의 결혼' 등 축하곡으로 서막을 열고 소프라노 권순성의 가곡과 선화예술 최유정 양의 찬불동요

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어 범경 정사(밀교연구원 연구원)의 사회와 통일원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개회법회에서 효강 총령은 영상 범어를 통해 "오늘 이 예술제가 음악을 통해 화

합과 조화를 이루는 만다라가 되어 부처님의 진리로 하나되는 통일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우주 삼라만상에 소통과 화합 속에 살아가 때 전체가 하나 됨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불교총단 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 총지중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영상 축하메세지를 전했다. 총무원장 지성정사는 개회사에서 "반목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불교도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통일 음악예술제'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세대, 계층, 지역 간의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의 통일,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법향과 범음의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이번 예술제의 개막을 선언했다. 많은 승가, 재가 귀빈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승가를 대표하여 종단협회의 사무총장 관음종 총과스님이 '원정 대성사의 밀교종향의 대원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총지중의 소통과 화합의 대원력이 혼란스러운 이시대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재가를 대표해서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 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교 총지중이 단합된 모습으

로 소통과 화합의 예술제 개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며 축사를 했다. 이어 총지중 총리원장 지성정사는 김포 마하 이주 센터, 오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줌인 연대 등 3곳의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지원센터와 새터민 경기대학교 조리학과 1학년 임성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이날 행사 의미를 더했다. 화합서원을 끝으로 개회법회를 마쳤다.

제2부 통일음악예술제의 본무대는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및 소리로 하나된 총지인의 노래'를 주제로 김자영 전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제1막은 대구 금강 합창단(지희 배해근, 반주 송미희)의 무대로 원정대성사의 '탄생과 불교입문'을 테마로 '지옥과 극락은', '배 뒤로' 두곡을 연주해 총지중 합창의 서곡을 열어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제2막은 원정대성사의 '수행과 참종'을 주제로 부산 만다라합창단 '염마니반메를', '다임 루 세이 콘바니' 두곡을 무대에 올랐다. 만다라합창단은 객석의 관객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제3막은 원정대성사의 '대원의 수필과 열반'을 주제로 서울 마니합창단의 무대로 '내가 그

대 이름을 부를 때'와 '님이 오신날'로 원정대성사의 구도 역경을 마무리 했다. 제4막은 '총지인의 노래'를 테마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전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의 이면 속에 자리 잡은 계층 간의 갈등,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일로 나가는 메시지를 총지중 전국 연합 합창단이 '기도', '석불의 빈손'과 '총지중의 노래'로 동참 불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최고의 장면을 연출 하였다. 이 순간은 총지중 교도뿐만 아니라 동참한 불자라면 누구나 천상의 가락비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약1시간에 걸친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하고, 이어진 3부 특별공연에서 최소리의 아리랑과티와 추가원, 주현미, 안치환의 무대가 이어져 동참한 불자들의 어깨를 들쭉이게 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약 4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전국에서 동참한 불자들로 좌석이 매진되어, 미처 입장하지 못한 동참자들은 복도와 외부 로비에서 티브이 화면으로 중계되는 공연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달랬다. 불교 총지중은 이번 예술제를 계기로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화합과 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

여의도 KBS홀=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웅망정진하며 정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총기40년 추계 승단총회 개최

총기40년 불교총지중 승단 총회가 10월 19일 설악 대명관도 동백홀에서 봉행되었다. 효강총령 예하를 모시고 지성 총리원장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스승님 전원이 참석했다. 효강총령예하는 범어를 통해 "그간 논의가 되었던 서원당 불상 봉안 문제는 원정에서 되돌려 기존의 본존과 양재 만다라 봉안을 기본으로 전국의 서원당을 통일합니다. 또한 그간 종단의 기관별 역할이 유명무실 하였으나,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합니다. 종조님이 남긴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 화합으로 바른 발전을 이루도록 합니다."고 유시했다. 이어 지성 총리원장의 종단 현안 사업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불교총지중 제78회 추계강공회 봉행

-외부강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불교총지중 제78회 추계강공회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고성 설악대명관도 동백홀에서 봉행되었다. 효강총령예하를 비롯한 지성 총리원장,

대원 중앙종회의장, 법안심 사감원장 등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님 64명이 동참했다. 18일 오후 3시 개강발사에서 지성 총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의 스승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계강공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공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효강 총령 예하의 개강발사 범어에서 "가을 철의 아름다움은 법계의 만다라가 펼쳐진 것입니다. 새해를 공 때 세운 서원이 잘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교상과 사상을 바로 하는 강공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당부

하였다. 이어 총령님의 특별정신교육이 있었다.(효강 총령 특별정신교육 5편) 강공 첫째날 외부 강사로서 강경종 전 동해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동서양의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둘째 날에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고광환 교수가 '삼밀수행과 자연치유'에 관해 강연을 펼쳤다. 셋째날 오전에는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의 '신묘장구대라니 해석'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이어 종강발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추계강공을 마치고 스승님들은 전국의 교화 현장으로 돌아갔다.

강원 고성= 김종열 기자

총지인의 입을 모아 화합과 소통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불교 총지중 40년 통일음악예술제에 동참해주신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합된 모습으로 불멸 홍포에 앞장서겠습니다.

총기40년 11월 5일

불교총지중 총리원장 지성 합장

◆ 동참해 주신 귀빈(무순)

종단협 사무총장 홍배스님 /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
전국총 문화사회부장 덕정사 / 총회총 총무원장 남정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학운스님(총무부장 상목스님)
일본선교종 총무원장 화원스님
보통종 기획실장 금두스님 / 생령나눔실현본부 이사장 일민스님
태고종 전 부원장 법원스님 / 백화사 주지 일범스님
국회의원 서울 강동 갑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문화관광체육부 총무실장 강봉석님

◆ 협찬회 회사(무순)

서울경인 신정회장 김은숙 / 마니합창단장 박경희 / 부산경남지회일동
부산경남지회회장 / 정각사신정회장류길자 / 관성사도일동
관성사총무부서 / 총정전신정회 / 백월사신정회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화합을 보내주신 분(무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불교총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
대한불교전대총 총무원장 직무대행 김무원스님

◆ 대원불교전대총 총리원장 혜경정사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범종 / 대한불교조종종 총무원장 덕우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와 임직원 일동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일동 / 불교 TV 대표이사 석성우
동해중 총동맹회 회장 이진복 / 국회의원 주호영 / 정봉희장 박범훈
서울경기불교합창단연합회 일동
동해중 법전위원회 위원장 김진도
동해중 교장 장재계 / 의곡지회 일동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신인복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경만
총지중 정각사 주교 대원
메디엔터테인먼트 회장 여인화
전단지 관음회 합창단 / 정경신 대표이사 노진용
연리지 중에서 대표 이남형

◆ 축전을 보내주신 분(무순)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김무원스님
생령나눔실현본부 이사장 일민
국회의원 김형오 / 국회의원 이진복 / 국회의원 김경준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되기를

-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 봉행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 대회가 11월 1일부터 11월3일까지 양양 낙산사 일원에서 봉행됐다. 1995년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로 14회를 맞으며 해마다 3국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국 대표로는 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승, 재가 180여명이 참가했다. 불교 총지중에서는 인선 총무부장, 범경 밀교연구원 연구원, 원당 밀인사 주교, 범일 벽룡사 주교, 서령 혜정사 주교, 사회부 김태원 교무가 참가했다. 중국 측은 쉐인 중국불교협회 회장 스님 의 132명이, 일본 측은 이토 유이신

일, 중,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스님의 146명이 참석하여 전년도 대회보다 2배 이상 참석자가 늘었다.

11월 1일 저녁7시 양양 솔비치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는 한국대 대표로 임원진과 참가자를 그리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을 대신해 모철민 제1차관과 정성철 양양군수가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모임을 숙 깊은 소통의 자리로 삼아 삼국의 불교대표자가 하나된 목소리로 인류 화합과 평화의 발원을 서원

하고, 유대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염원하는 바입니다."며 대회에 참가한 중국, 일본 대표들을 환영했다. 이에대한 답사로 일본측 야스다 에이의 스님(일정한 불교교류협의회의 부이사장)은 "일본은 지난 3월 11일 일어난 대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 한국과 중국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추고의 공양을 나누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수당시대, 한국의 백제-신라시대, 일본의 나라사대는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융합한 불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정신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 질수록 거기에 걸맞는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며 따뜻한 환영과 삼국의 불교 문화 교류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는 모철민 제1 차관이 대독 하였고, 정성철 양양군수의 축사를 끝으로 첫날 환영 만찬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양양 낙산사에서 종단협의회장인 혜경스님의 사회와 해만스님의 집전으로 세계평화위원회대회를 봉행했다. 낙산사 주지 우송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음성지 낙산사에

서 동북아 불교를 대표하는 대덕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참으로 뜻 깊고, 불국찰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며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3국의 예불의식과 평화기원 메시지 봉독에서, 각국의 전통적인 예불의식이 봉행되었다. 공동발원문은 3국 대표인 한국의 무원 스님(종단협의회 부회장 직무대행), 중국의 민성스님(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일본의 모짜다 니제유스님(교류협의회 상임이사)의 공동 낭독으로 발원했다. 각국 발원문에는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원만 개최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원과 세존의 불살생 정신을 이어받아 대법과 폭력을 멈추게 하며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 했다. 오후에는 솔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기조연설에는 진각종 혜정 정사와 중국의 혜청스님, 일본의 교류협회장 이모오 유이신 스님이 하였다. 이어 각국대표의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저녁 7시 환송 만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양양=김종열 기자

천태종 대각국사 910주기 남북합동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은 대각국사 의천(義天 · 1055~1101) 스님 열거 910주기를 맞아 10월 31일 개성 영통사 경선원에서 '영통사 낙성 6주년 및 의천 대각국사 910주기 열반 대제'를 봉행했다.

천태종 사회국장 췌주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대제에서 천태종 사회부장 안산 스님은 남북 연설에서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살의 나이로 영통사에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하시고, 신묘한 법화를 찬란히 만개시킨 공덕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가움에 앞서 높은 법력의 가피를 느낀다"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차금철 부장도 북측 연설에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령통사가 민족통일의 참다운 도량으로 화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막아있는 령통사

순례길도 하루빨리 열리게 될 것이며, 오늘 법회는 그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합동법회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민족의 기치아래 화해와 단합,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또하나의 통일봉사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태종 복지국장 월도 스님과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이 함께 공동발원문을 봉독했다. 두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의천 대각국사의 인연으로 남과 북, 북과 남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 뜻으로 영통사에 함께 하니, 이 자리가 바로 평화의 자리, 통일의 자리"라며 "남과 북의 형제들이 불심으로 화합해 통일의 길을 밝혀 나가는 이러한 통일보살로 거듭나는 소중한 법회가 되도록 무량한 가호를 내려달라"고 발원했다.

진각종 제11대 총인(總印)에 성초(省超) 정사 추대



진각종 제11대 총인에 원소스승 성초 정사가 추대됐다. 진각종 인의회(의장 도흔 총인)는 10월 25일 오후

5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내 인회의실에서 제19회 인의회를 열고 성초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인의회에 앞서 종의회(종단 최고 의결기구·의장 혜명 정사)는 이날 오후 2시 재직의원 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74회 정기총회를 열어 성초 정사를 총인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진각종은 제10대 도흔 총인의 임기가 11월 27일자로 끝남에 따라 제11대 총인 성초 정사 추

대법회는 11월 24일 통리원에서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제11대 총인으로 추대된 성초 정사는 제3, 4, 5, 6, 7, 8, 9, 11대 종의회의원과 제6대 중앙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장, 제25대 통리원장, 제12대 종의회의 의장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남부심인당 주교를 거쳐 현재 해원심인당(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교로 있다. 1999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김종열기자

조계종 제23회 포교 대상 시상식 봉행

-포교대상에 신흥사 회주 무산스님, 공로상에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수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10월 24일 조계종 불교문화회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회 조계종 포교 대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포교대상에 설악산 신흥사 회주 무산 큰스님이 수상했고, 공로상에는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과 3명이, 원력상에는 사단법인 동원 이사이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부회장인 신공스님(통도사 청원포교당)의 9명이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는 모든 불자의 사명입니다. 불자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 포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포교를 하는 사람도 좋고, 포교의 내용도 좋고, 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접하는 사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행위가 포교입니다. 또한 전

도 선언에서 부처님께서 밝히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 포교입니다."라고 포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사를 통해 "포교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부촉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포교는 모든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원력과 자비심을 본받아 많은 불자들이 포교의 일선에서 정진하자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안락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포교대상 수상자인 무산큰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으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통하여 '만해대상', '만해축전' 등을

주최하여 불교 포교의 장을 열었으며, 세계 평화와 문화 교류에 공헌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공로상 수상자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은 1991년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을 주도하였고, 2003년에는 회관을 건립하고, 2006년에는 회관 내 법당을 건립하여 지역불교단체의 법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청소년 장학 사업을 전개하였고, 부산불교방송 개국에 큰 역할을 하여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500여명이 동참하였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9/28	10,000
개천사	무명찌	10/24	10,000
관성사	경 관	9/27	10,000
관성사	대도행	9/27	10,000
관성사	김봉기	10/11	10,000
관음사	신막심	10/6	10,000
관음사	김유성	10/12	10,000
관음사	정원심	10/12	10,000
관음사	정숙정	10/17	20,000
관음사	무명찌	10/21	70,000
관음사	신막심	10/24	10,000
기 로	대 개	10/24	10,000
기 로	대자행	10/24	10,000
기 로	밀공정	10/24	10,000
기 로	범수원	10/24	10,000
기 로	법장화	10/24	10,000
기 로	법지원	10/24	10,000
기 로	불멸심	10/24	10,000

기 로	사중화	10/24	10,000
기 로	상지화	10/24	10,000
기 로	수증원	10/24	10,000
기 로	총지화	10/24	10,000
단음사	천 공	10/5	4,000
단음사	법연지	10/19	10,000
덕화사	하순옥	9/27	5,000
밀인사	이혜성	9/27	20,000
밀인사	정정희	9/29	5,000
밀인사	이혜성	10/11	20,000
밀인사	이희원	10/12	10,000
밀인사	모심해	10/24	10,000
밀인사	이재원	10/24	10,000
밀인사	이연수	10/24	10,000
밀인사	원 당	10/24	10,000
백월사	진 평	10/17	5,000
법천사	김경숙	9/30	5,000
법천사	시 정	10/24	10,000

법천사	원만원	10/24	10,000
벽룡사	양지현	9/27	10,000
벽룡사	양정현	9/27	10,000
벽룡사	이종호	9/28	15,000
벽룡사	무명찌	10/5	20,000
선립사	심지장	10/18	10,000
선립사	정복지	10/18	10,000
성화사	유담배려	10/14	50,000
수인사	김봉기	9/27	10,000
수인사	장영택	10/6	50,000
수인사	황보기문	10/20	20,000
승천사	원 봉	10/24	10,000
승천사	지선행	10/24	10,000
시법사	환수원	10/24	10,000
실보사	이순옥	10/5	5,000
실보사	이순옥	10/19	5,000
실지사	송우성	9/30	5,000
실지사	서남교	10/5	10,000

실지사	이화수	10/20	10,000
실지사	송우성	10/24	5,000
운천사	반야화	10/17	20,000
정각사	이정선	10/19	5,000
정각사	구정희	10/19	20,000
정각사	박동휘	10/19	10,000
지인사	송호재	10/24	10,000
총지사	황보정미	9/26	500,000
총지사	이인성	10/14	30,000
혜정사	오해민	10/4	20,000
회음사	이영희	9/28	10,000
회음사	박상운	10/19	10,000
흥곡사	지 정	10/24	20,000
안효정		9/27	20,000
이해원		9/30	5,000
신 바		10/6	100,000
임동수		10/11	30,000
박발조		10/24	5,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제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로 소속사원명, 통신번호로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로기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40년 중앙총회 개최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도 열려.



10월 12일 총지종 총리원 2층 연화실에서 총기40년 중앙총회(의장 대원정사)를 개최했다. 총회위원장 대원 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총회의원 17명 전원과 지성 총리원장, 인사 총무부장 그리고 총리원 담당 교무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의에서는 총기 40년추경에

산안 및 총기 41년 예산안을 심의, 총지종 유지재단 임기 만료 감사에 지공정사와 안성님임명 동의안, 승적법 개정안, 기로원 활용 방안 등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또한 기타안건으로 실시자 건물 설명, 정심사 부지에 관한 사항, 과산 수련원 부지 관리지역 확정 및 만다라 관련 사

항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앞서 원의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도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결의했다. 결의 사항은 10월 22일 추계강공회에서 전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설명 공포한다.

김중열기자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10월 12일 불교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서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봉행 되었다. 추선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 지성 총리원장, 대원 중앙총회 의장, 인사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 중앙총회의 의원, 서울, 경인 지역 스승님 그리고 김은숙 서울, 경인 지구 신정회장 등이 동참 했다. 중앙총회의장 대원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는 개식사, 대

비로자나불전호법, 훈향정공, 무상계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전언, 실지정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선불사는 총지종을 발전과 교화의 밑거름이 된 열반스승님들에 대한 왕성성불을 추념하는 불사다. 지난해부터 추계 강공과 분리하여 본산 총지사에서 중앙 총의회 후 봉행하고 있다.

총지사=김중열 기자

불교방송 신임사장 인사차 총리원 방문



지난달 선임된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이 10월 24일 신임 인사차 총리원을 방문 지성 총리원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신임 이 사장은 지성총리원장에게 그동안 불교방송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총지종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경영개선방안과 추진 할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날 환담에는 총리원 총무부장 인선정사가 배석하였다.

불교총지종 제7대 총리원장 하정(何 定)종사 열반



불교총지종 제7대 총리원장을 지낸 하정(何 定)종사가 총기40년 10월 13일 새벽3시 열반에(세수 79세, 법랍 36년) 들었다. 총지종 총리원은 지성총리원장을 위원장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장으로 임수했다. 10월 15일 오전 7시 봉행된 고결식은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 전국의 스승님과 많은 교도들이 참석했다. 시정 재무부장

의 사회와 인사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거행된 고결식에서 총리원장 지성정사는 "하정 종사님께서서는 일생을 오직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에만 매진하셨던 큰 스승님이셨습니다. 자비와 인과를 법으로 삼아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굳건한 사명감과 깊은 신심과 발심으로 일관 해 오셨던 종단생활, 오로지 일체중생의 구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영육을 같이 나누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중생제도의 본회(本懷)를 남김없이 펼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빠 가시니 통애(痛哀)의 큰 슬픔은 큼이 없습니다."며 종사의 업적과 왕성극락을 서원하며 승단을 대

표해 조사를 남겼다. 고결식을 마친 후 부산연락공원에서 다비식을 거친 법구는 경남 밀양에 모셔졌다. 하정 종사는 총기3년(1975년)에 지송급에 흡수되어 밀양선교부(현 일상사)군무를 시작으로 승직에 들어 밀행사, 자재서원장, 국광사, 덕화사, 정각사, 법성사 등 주요 서원담 주교를 역임했다. 또한 총리원 총무부장, 사감부장, 전담건설위원, 학교법인 대동학원이사, 제4대 중앙총회의 의원을 거쳐 총기 20년(1991년) 제7대 총리원장에 취임했다. 종사께서는 평소 원정 대성사의 유언을 받들어 교화와 수행정진을 불퇴전의 자세로 임했다.

부산=김중열 기자

중립 동해중 사물놀이단 중국 상해 공연



중립 동해중학교 사물놀이팀(지도 다. 율해는 동해중학교 사물놀이반이 교사 김광무)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해시 초청으로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여 모듬북과 사물놀이 공연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국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시 관광국과 흥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 행사 개막식에서 우리 전통의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부산광역시와 상해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매년 문화 교류 행사를 갖고 있

문화교류팀으로 선정되어 이번 행사에 참가하였다. 공연장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과 관광객 약 1,000여명이 신명나는 사물놀이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립박수를 보냈다. 동해중학교 사물놀이 팀은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실력 있는 팀이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아미 농악 전수자인 김상현 선생의 지도로 매주 8시간씩 연습에 열중한다. 또한 매년 봉축행사에 총지종을 대표해 연등축제에 참가해 많은 사랑의 사랑을 받는 팀이다.

동해중=김광무 선생님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염주 보시



신정회 충청, 전라 지회(회장 민순분, 총무 이민자)는 지난 9

월 보살은 "이번 염주 보시는 그동안 사원 별로 매일 적립한 신정회 기금의 내역과 그 사 용처를 공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염주보시를 하게 되었습니다."며 이번 보시의 의도를 설명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신정회 기금을 조성해 교도들과 함께하는 행사지원, 불우이웃돕기등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월 염주 400여개를 제작 교도들에게 보시했다. 이번 보시는 그동안 각 사원별로 매일 회비로 적립한 신정회 기금 약600여만원의 교도들에게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지회장 민순

불교총지종 부산 경남교구 진주 화엄사 헌공불사

진주화엄사 헌공불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할 예정이오니

스승님들과 교도분들의 무무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40년 11월 24일 오후 1시

▶ 장 소 : 진주 화엄사(경남 진주시 망경동 9-3)

▶ 연락처 : (055)755-4697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 동행 취재기

화령 중앙교육원장 LBF 명예회장 추대

부처님의 진리 안에 다시 태어난 법연의 시간



대회 개막 하루 전(D-1)

제5회 국제 재가불교지도자 대회 환영 만찬이 10월 26일 오후 6시 인천 베스 트웨스트 에어포트호텔에서 열렸다. 전 세계 15개국 5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과 불교총지종 지성 통리원장, 인천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및 서울 경인지역 스승님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환영 만찬은 서울, 경인지역 신정회 회장 김은숙 보살의 후원으로 열렸다.

대회 집행위원장 화령정사의 총지종 스승님 소개에 이어 통리원장 지성정사는 "세계 각국에서 오신 재가 불교지도자분들을 환영하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우리 생활불교를 온몸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했다. 불교총지종 교도를 대표해 김은숙 신정회장은 "아름다운 가을에 한국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 합니다. 뜻 깊은 대회와 즐거운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종인 재가불교포럼 위원장은 외국인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다짐했다. 독일의 프란츠 그윈트 교수는 "지난 5년간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지원해 주신 불교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과, 환영만찬을 마련해 주신 김은숙 신정회장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라고 참가자들이 생활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크리스티나 장 사카디타 회장은 외국 참가자들을 대표해 "재가불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불교 총지종 회장 종령님과 총지종 전 교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개최사 대표인사를 했다. 각국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의 개별인사를 마치고, 기조발표에는 독일의 프란츠 그윈트 박사가 '재가 불교의 오계 준수와 그 현대적 의미'와,

말레이시아 보디연구저널의 불 수 리안 교수가 '사회에 의미가 있는 다라마를 만드는 재가 불교도들의 활동'을 발표하였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목동 국제 선선타로 장소를 옮겼다. 국제선선타는 조계종이 설립한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기관으로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머문다. 국제선선타 7층 금자선원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주지 현조스님은 "국제재가 불교지도자 여러분을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전통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며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관람한 후, 세미나리실 이동 대회 참가단체별 소개 행사를 진행했다. 저녁 공연 후에도 세미나는 이어져 미국의 리안 교단 나일 마리아 케는 선선타 교수의 '한손의 소리'와 7편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대회 첫째날 일정을 바쁘게 보내고 오후 9시 죽비 소리와 함께 취침에 들었다.

대회 둘째 날

새벽 다섯시 참가자들은 피곤한 몸이지만 모두가 새벽예불에 참가했다. 한국의 대표적 현교인 조계종의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아침 공양 후 둘째날 세미나가 열리는 경희대학교 오비스 홀로 이동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인 경희대학교는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영국의 버카드 셔러 캔터베리 기독교학 인도, 티벳학과 교수의 '티벳 불교의 카르마 카류 전통에서의 철학과 관점'을 비롯 진 리프스 중국 북경 인민대학 석좌교수의 '재가 불교도들과 비구니들을 지켜주는 이'



대회 셋째 날

이날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서울의 모습을 관광하는 스케줄로 시작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에 기온도 많이 떨어져 초겨울의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은 들뜬 모습으로 버스에 올라 첫 탐방지인 조계사를 방문했다. 마침 조계사는 국화축제 중이었다. 도심 한 가운데 전통 사찰에서 가을의 대표작인 국화의 다양한 모습에 감탄을 자아냈다. 서둘러 법당의 참배를 마친 후 백상 토끼어리와 국화 분재 앞에서 기념 촬영에 열을 올렸다. 길 건너 인사동 거리에서는 다양한 전통 문화 상품에서 한국의 공예품들과 맛을 마음껏 즐겼다. 이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조의 숨겨진 정원으로 유명한 창덕궁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고궁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가슴으로, 사진으로 담았다. 인사동에서 한국 전통음식으로 마음의 점(點心)을 찍고 총지종 통일음악예술제가 열리는 여의도 KBS홀로 향했다. KBS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불교총지종이 40주년을 맞아 여는 통일음악예술제는 개축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불교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여

는 천상의 법회였다. 무대 전면에서 마련된 관람석에 앉은 참가자들의 오페스트라 선율이 소프라노의 청아한 목소리로 전하는 한국가곡에 마음의 귀를 열었다. 본격적인 합창예술제에서는 총지종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에 한국 한국 이어지는 합창곡에 천상의 가톨릭가사를 무대에서 만났다. 3부 축하공연에서는 한국의 유명 대중가수와 가요를 접하고 흥겨워 어깨춤을 댄실 댄실 추었다. 불교 총지종의 화합의 한마당에 동참하고, 그 열기를 뒤에 한 채 마지막 공식일정인 환송 만찬이 벌어지는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하였다. 한강 유람선 선상에 마련된 환송 만찬장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와 총무부장 인선정사 그리고 만찬을 주최한 총지종 김은숙 신정회장님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다. 이날 만찬에서 참가자들을 대표해 독일의 프란츠 그윈트 교수는 지난 가을과 세심한 배려로 보살펴주신 불교총지종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내년 스페인에서 개최 예정인 제6회 대회에 통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열린 만찬을 끝으로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는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스페인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서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취재 = 박종환, 배경주 교무



생각 더하기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출판사는,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운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분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제78회 추계강공 효강 종령 특별정신교육

-화합으로 새종풍 운동에 박차를 가하자



오늘 제78회 추계강공회에 즈음하여 여러 스승님들께 '화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법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화합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과 작용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심지어는 미물까지도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밀교에는 등류법신(等類法身)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부처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느냐에 대해 ‘삼평등’으로 설법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것은 ‘같이저가 같다’ 하나의 하나 더하면 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삼평등의 평등의 뜻이 ‘원융무애’의 상태에서 전부가 하나이다’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각기 다른 게 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미국사람, 한국사람도 다르고, 강물도 낙동강, 한강이 모두 각기 달리 있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불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평등이란 부처와 너와 모든 중생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가 안되면 장애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주변

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서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온갖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저 이슬람 계통에 중동 산유국들이 독재에 항거하는 온갖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부 국민을 대립적으로 멀리하고, 자기 혼자만이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극단의 헛된 욕심에서 결국 공멸(共滅)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인 삼평등(三平等)을 해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고, 그 사람이 곧 나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항상 자기 위주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요 그러한 정신으로 살면 모두가 아름다워집니다. 상대방이 절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삼평등의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면 성불의 경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삼평등은 우리 인간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연도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도 자연과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자연은 나와 하나입니다. 나에게 조금 이렇다 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결과적

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자연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연을 파괴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이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대립적으로 여기며 정복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세계 사막화를 방지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긴 새로운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삼평등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종단도 정말로 삼평등의 진리에 입각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삼평등의 실천을 통해 그야말로 화합하는 종단, 진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승단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합을 잘 하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이번 강공의 테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종조 법설집』 13쪽을 보면, “내가 화합 바라거든 진제심을 내지 말고 고쳐 생각하

며 자기와의 화합을 위하여 다툼이에게 인간을 붙이지 말고 자기의 명예를 존중하거든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따가 위대한 자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요 결국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중을 이롭게 하면 그 사제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하고 장엄한 이익이고 화평과 은으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 무궁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참다운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정신으로 산다면 분명히 화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중을 해롭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면은 그 보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도 이익이 없고, 수원과 투쟁으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암화가 다져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 보려면, 중생들의 대화를 들어 보으면 남의 단점 말하고, 남 흉담 빼면 재미없습니다.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단 안에도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아무 정사가아 팔고, 아무전수가 아떨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살일날 경을 읽고 설법 하실때 전부 진제심을 없애다 말합니다. 우리가 실천 안하면 그 얘기를 해도 듣는 보살님들은 하지도 안받아들입니다. 요 간단한 걸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 비방하는걸 보면, 남 흉보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 허물은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허물이 보이면은 나도 그렇지 않나.종조법설집에 안나옵니까, 그때마다 회상하고, 정진하고, 참회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고 그사람도 전부 복이된다 했습니다. 그하에서 벗어나게된다.그때다 앞으로는 일체 승자가 끼리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그사람한테 불만하기전에 내소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내가 그런 허물은 그렇게 반드시 나도 그런 허물이 있다. 부처님이 나에게 그런 법문을 보여 주신다. 이런생각 해야 합니다.그리고 이화합은 그렇습니다.일상생활에 말하는걸 보면 회타자입니다.참 그사람 실력도없다.그리고는 자기를 내세운다 말입니다.평생 중생의 영에서 못벗어나다. 그런것이 화합을 깨뜨린다.전부가 부처인데 어느분에서 그사람이 지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더라도, 자분이부처인데 하고 생각해 보면 그사람의 허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종단을 얼마나 아끼고,종단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에 나날이 사원하고, 종단 발전 교화 이외에는생각이 없을줄 압니다.

다.내가 생각하기에 종단의 집행부나 어느 집행부가 하거나간에 안저러면 좋겠느냐.진실한 생각이 있다면은 참 작정 통리에 오시거나, 전화를 해 내생각은 이러는게 좋지않다. 그래하니 일선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그래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켰 모여 앉아 수근거리면 이것은 그 남 종단을 완전한 망가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삼평등의 진리에 어긋난다.그래서 내가 이번 강공의 주제를 화합으로 삼은것은 우리종단의 화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화합에 최선을 다해보자 합니다.남에게 미루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자.

화합은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의 반대는 이기주의입니다. 전자는 대인이고, 후자는 소인입니다. 전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후자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며 결국 영원히 지탄을 받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종단을 위해서 화합하고, 종단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길이가 우리 정사 전수님들이 우리 종지종 역사에 언제까지나 존경령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화합을 이루어야합니다. 종단의 교전인 불교종전 66쪽 2번에 보면, 화합하는 여섯 가지 법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교상미에 계시 때의 일이 다. 비구들 사이에 어떤 비구가 계를 벗었다. 비바하지 않았느니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존중해야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다. 꼭 기억하여 이법에 의해 화합해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는 같은 계율을 지키며, 둘째는 의견을 맞추고, 셋째는 받는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며, 넷째는 한 장소에 같이 모여살고, 다섯째는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며, 여섯째는 남의 뜻을 존중한다.” 부처님은 이른날 교상미에 들어가 걸작을 마치고 다시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대중들이 화합하지 못할때는 저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때에는 참고 견디며, 자비한 마음으로 법답고 친절할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자리에서 화합해서 한 스승의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분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665쪽의 4에 보면, 화합하지 못하는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허물을 누워서 참회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었

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종조님께서도 열반을 하시면서 “화합하라” “화합을 깨트리면 안된다.”고 누구이 말씀 하셨습니다. 불교는 실천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종단이 정말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계 법담게 생활해야만 우리의 수행도 완성될 수 있고 종단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 참회해야합니다. 나날이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합니다. 우리가 갖고 닦고야 내세에 극락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단의 승직자가 갖고 뒀으면 종단이 빛나고 교화가 흥성해집니다. 우리가 종지종의 역사를 잘못 기록하면 영원히 아픈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 대 종단을 위해서 된 해야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 가운데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잊사람은 아랫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하고, 후배는 선배를 잘 섬겨야 합니다. 상급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수순해야 합니다. 화합을 해트리는 것이 가장 큰 바라이죄에 해당하는다고 하였습니다. 원로 스승님들이 선봉에서 잘 지도도 좀 해주시고 출신수범에게 과거와 달리 확실하 나타났을 때 교도들에게 보이는 우리 승단의 모습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이번 강공이 계기가 되어서 교도들이 스승을 볼 때 참 부처님 같이 생활하는 분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설법하는 것보다 그것이 제일 큰 설법이 됩니다. 그 교화가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경의 말씀을 전하고, 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이 보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랄스럽고, 자랑스러운 분이 우리 정사, 전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심입니다. 기로 스승님들 한 분이 연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때에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참성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단이 소중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화합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출신수범하시고, 한 시 종단을 걱정정해서 서로가 충고하고 잘 못하면 서로가 이끌어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야말로 참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생명을 다해 생활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사원드리고 오늘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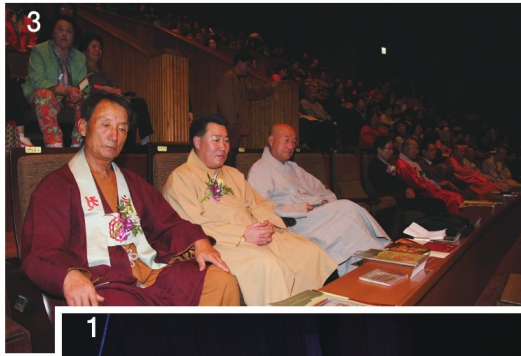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수지한 정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불교 총지종 40년 통일음악 예술제



사진설명

1. 연합합창단의 '총지종의 노래'
2. 공연장에 입장하시는 효강 종령예하
3. 동참하신 귀빈들
4. 전국에서 보내온 축하화환
5. 국제재가불자지도자 대회 참가자들
6.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성금을 전달하는 통리원장
7. 공연에 동참한 교도
8.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창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鰯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증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자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협: 643045-52-114021
광주은행: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염어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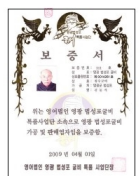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 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급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 요리방법

생선 굵은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쪄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410-97-06370 대표자: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061-356-2466 FAX: 061-356-2468 H P: 010-5325-8824

※ 제조된 청수굴비는 영여법인 영광굴비 특목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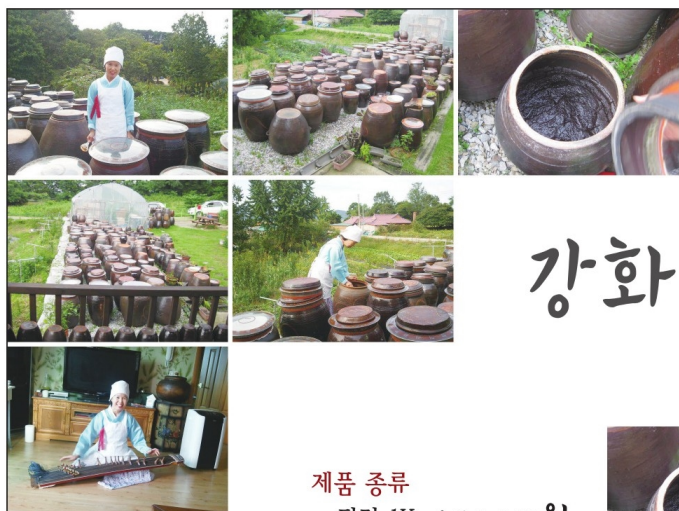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와압과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사진설명

9. 충지중 연합합창단의 공연
10. 개회사를 하는 지성 통리원장
11. 동참하신 전국의 스승님들
12. 대구 금강합창단의 공연
13. 부산 만다라 합창단의 공연
14. 서울 마니 합창단의 공연
15. 무대의 분위기에 즐거워하는 교도
16. 가수 주현미의 축하공연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

이일정(1876~1935)



이일정은 아버지 선재와 어머니 송씨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 했다. 열여섯살이 되던 해 혈조관서를 지낸 김병시의 중매로 서른네살의 이준과 혼인하였다. “고향에 처자가 있는데 어떻게 또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준의 말에 김병시는 장래를 위해 오른팔이 될 동지가 필요하다는 혼인을 적극 권했다. 이일정은 어머니도 김병시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두말없이 따르겠다 하여 혼인이 성사 되었다.

이준은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17대 손이었고 헤이그 밀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 후 이일정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준의 출생한 동지가 되었다. 이준이 국제보상 연합회의의 초대 소장으로 추대되자 이 운동을 위해 서울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준이 항일운동을 하다 구속 되었을 때는 시위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남작들과 함께 종로 거리에 나가 시위대열 제일 앞에서 연설하는 대답함을 보여주었다. 이준이 유배당했을 때는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일정은 “여자가 반드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05년 그가 이준의 동의를 얻어 살던 집을 팔아 안현동(지금의 안국동)에 상점을 열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여성이 직접 경영하고 여성이 쓰는 물건만 파는 상점으로 가게 이름은 ‘안현 부인상점’이었다.

개화 물결이 밀려들긴 했지만 젊음은 양반은 굶주림지연 학문에 힘써야지 이익을 바라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양반집 여성은 외부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던 시절 과거 급제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생 출신인 이준의 아내가 상점을 연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안현 부인상점’은 전면을 유리로 장식했다. 당시에는 가장 앞서가는 인테리어였다. 이일정은 직접 상점에 나와 바늘, 실, 실크, 단추, 펜, 머릿기름, 빗, 비누 같은 여성용 필수품과 살림살이를 팔았다. 그 시대에 가장 현대적인 접화상이었다.

가게는 인기가 높았고 주인이 여자와 젊음은 때 마님들도 안심하고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몸종을 거느리고 와서 마음 놓고 물건을 골랐다.

양반 때 부인으로 상점을 스스로 운영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이준의 아내가 상점을 열었다니 호기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 해 준 이는 남편 이준이었다. 1907년 이일정은 상점 수익금 일부를 일본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한 의견금 모집문에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 나라를 바로 세우고 문명 부강하게 되면 여성의 삶도 나아져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을 읽은 장안의 부인들은 너도나도 의견금을 냈다.

이일정은 신소담과 함께 여자 교육회의의 부총무를 했고 신소담의 공동학교에서 교감도 하며 여성근대교육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아이 교육은 어미 품에서 시작된다. 그 어미가 지식이 모자라면 자녀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여성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민족이 발전하려면 여성들이 깨달아야 하고 그 첫걸음은 여성교육에 있다. 이일정은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국제보상운동은 우리정부가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갚자는 국민운동이었다. 반지와 노래가 많이 모였고 애써 모은 돈을 내놓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 1907년 4월 이일정은 남편 이준을 떠나 보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다. 이준은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불평등조약을 만천하에 알리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했다. 그는 남편의 유해도 보고 안고 싶었다. 3년 뒤 유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났지만 빈 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해는 장사에 머물고 추색은 깊은데 어디 가서 남편을 장사해야 하는가?”라는 시를 남겼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야기된 남편을 잃은 아픔은 이일정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괴로움을 주었다. “나는 나라를 늘 준치라는 생각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내 몸과 마음에 너무 많은 가치를 찾아 주었습니다.” ‘신동아’ 잡지 인터뷰에서 한 말로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3세가 된 이일정은 종로 3가 단상사 뒤쪽의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슬픔만 안 앓으며 살지는 않았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길에 매진 하였다.

1935년 이일정은 외동딸 종숙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58세로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서야 이준의 유해는 돌아왔다. 1963년 두 사람은 서울 수유리에 나란히 묻혔다.

이일정 그는 진정 여성 교육과 애국계몽에 힘썼던 여장부였다. 이준 열사 부인 이일정에서 더 나아가 애국계몽운동가 이일정이었다.

(자료: 여성사전신문)

불교설화 <61>

관세음보살 친견의 서원이 깃든 강화 석모도 낙가산 보문사



낙가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물이 빠진 갯벌 저편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 몇 개가 서해의 한눈을 지키고 있었다.

희정은 오늘도 관음기도를 하고 있었다. 작은 암자에 홀로 기거하며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천수천안의 대비행을 배우고자 이 산마루에 묻힌지도 어느덧 10년 세월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세월과는 상관 없이 기도는 한결 같았다.

희정은 아스라히 금강산을 생각했다. 그리고 보덕각시를 생각했다. 품같은 일들이 눈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무란세음보살.....”

그는 원래 금강산에서 수행을 했었다. 처음은 배워 자락에 단란 읍락을 짓고 관음보살의 원형을 은뚱으로 배우고 실천 할 것을 원력 세우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의 소원은 관세음보살님을 꼭 한 번 친견하는 것이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번갈아 가며 기도를 하고 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다. 한 노파를 만나는 꿈. 그리고 그 노파가 들려 준 생생한 이야기. 그는 꿈속에서 비를 맞으며 바닷가 옆전 바다를 헤매고 있었다.

꼭두속 등대처럼 보이는 소금막에서 그 노파는 물었다.

“웬 스님이 이렇게 비를 맞으며 다니시유.”

“금강산의 희정이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고자...”

“이런 곳에서 찾으면 되는가. 강원도 양구땅에 가서 물골을 만나 해명방 노인의 안부를 물어라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긴 어디야. 낙가산이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꿈이었다. 또렷한 노파의 이야기와 그 이름들. 낙가산이라면 관세음보살이 머무시는 산이 아닌가.

희정은 그 꿈이 꼭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자리에서 이미 그는 집을 꾸리고 있었다. 등집 하나에 지팡이 하나.

그는 물어 물어 양구 땅을 찾았고 우연히 만난 노인이 바로 물골옹이었다.

땃발을 걸은 괴로움 질어져야 했던 석암벽. 양구의 험준한 산자락 어느 초가에서 만났던 물골옹은 강마루 체구와는 달리 유연하고 그윽한 눈매로 다정한 눈길을 주는 노인이었다.

“저물었는데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아, 예.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물골옹이라면 아실지 모르시디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만난 물골옹은 희정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글세 해명방을 만나면 관음을 친견

하는 일도 성취가 되긴 할테지만 그 법음(法音)을 들을 수는 있을런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희정은 관음을 친견할 수 있다는 말에 흥분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만나기만 한다면 법음을 들을 수는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어린 아이처럼.

물골옹이 가르쳐 준 길은 험했다. 산을 넘고 계곡을 돌아 한참을 간 곳에서 희정은 조촐한 솟막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솟막에는 나이 든 노인이 열 여덟 살이나 되었을직한 어여쁜 딸 하나와 살고 있었다. 희정이 먼저 만난사람은 딸이었다.

“소승은 금강산에서 온 희정이라합니다. 해명방 어른을 만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산 너머에서 만난 물골옹께서 이리로 안내하십시오.”

“그분은 저의 아바님이십니다.”

이렇게 만난 해명방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다는 희정의 말을 듣고 의외의 서약을 강요했다.

“모든 일을 내가 시키는대로 복종할 것을 약속해라.”

“네. 분부를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성을 친견할 때까지 나를 부모 모시듯 시봉할 것이며 또 내 딸과 결혼을 하여 살아라.”

희정은 어이가 없었다. 노인을 시봉하는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출가남자에게 결혼을 요란한 말인가. 그러나 그 분부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관음을 친견하고자 하는 절절한 소망과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서 있는 자신의 현재를 생각하면 과거는 이미 과거가 아닐 수 있었다.

희정은 솟막 일을 거들었고 해명방의 딸 보덕각사와 부부가 되어 살았다. 천만다행이었다. 보덕각사는 여자구실을 못했으므로 여염집의 부부와는 달랐다.

서로 눈빛으로 부부였을뿐 애욕의 그늘로 빠져 들지는 않았다. 그런 세월이 3년.

희정은 금강산에서 3년기도를 한 뒤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3년이 지난 것이었다.

“아. 허망하도다. 이제 기도는 뒷전이고 솟막만 하고 또 보덕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나는 참으로 기구하도다. 한낱 꿈을 믿고 너무 많은 것을 던져버린 것은 아닐까.”

지난 세월을 더듬으며 희정은 후회스런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산을 내려갔다.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그간의 세월을 잊어버리고자 했다.

돌아가는 길은 찾아왔던 길 그대로였다. 그

길에서 희정은 다시 물골옹을 만났다.

“그래 관음대성은 친견 하셨는가?”

“친견은 커녕,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거기에 파계까지 해야 했고...”

희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락이 쳤다. 물골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에잇,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아. 3년이나 대성을 모시고도 만나지 못했다니. 내 뭐라더냐. 만날 수는 있어도 법음은 못들을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해명방은 문수대성이고 네 세시 보덕은 관음대성이다. 이 몸은 문수의 도반 보현이고.”

희정은 정신이 반짝 들었다. 허겁지겁 돌아간 솟막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돌아온 물골옹의 집도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 끝난 길인 것이었다. 3년 세월이 통째로 꿈속에 갇혀 있었던 것인가.

희정은 금강산과 양구 땅에서의 기막힌 경험을 하고 꿈속에서 들었던 낙가산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이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바로 석모도였다.

그는 이 산의 이름을 낙가산이라 부르고 다시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것을 서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관음대성의 대자대비를 배우고 있었다.

희정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다시금 기도정진력을 가다듬고 있는 한 낮에 어부 한사람이 찾아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님, 돌 부처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부는 전날 한 자릿의 돌불상 스물 두 개를 그들로 건져 올랐다. 고기가 아닌 돌불상이었으므로 그는 바다에 다시 던지고 다른 곳에서 그물질을 했다.

또 그 돌불상들이 올라와 다시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 “왜 성인들을 바다에 버리느냐. 그분들은 서역에서 오신 나한님들이라.”

내일 다시 건져 낙가산 길지에 잘 모셔라.”라고 말했다.

과연 그는 다시 돌불상을 건져 올렸고 낙가산을 오르다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 “여기가 그 길자인가”만 생각했는데 그곳이 바로 희정이 기도하는 음각 근처의 석굴 앞이었다.

희정은 어부와 함께 석굴로 달려 갔다. 석굴 안에는 불상을 모시기 좋게 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스물두 나한상을 모시고 나니 굴 가둑 서기가 어렸다.

“이 관음도량을 지키고 복락을 배풀기 위해 나한님들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

희정은 손구지는 감격과 환희심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낙가산 보문사는 이렇게 천수천안 관음의 은기와 나한님들의 선한한 기복복락이 서려 있는 도량으로 파어 올랐다.

한 여름 날의 연꽃처럼.

축 개교 44주년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날마다 좋은날

불교와 함께한 인생행로

정각사 단원희 강 경 중



불교공부와 학생회 활동

이후로 나는 불교 서적을 사서 읽게 되었고,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설법이 열심히 들었다.

모르던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니 환희심이 솟아났고, 내가 배운 것을 가만 물어두지 못하고 옆의 동료들에게 전해주려고 안달했으며, 동행하는 동료들도 차츰 붙어났다.

방학이 되면 큰 사찰에서 갖는 단기출가과정에도 다녔다.

그 덕택에 단편적인 지식은 많이 얻었는데 그것이 정리되지 못하여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졌고, 이 말과 저 말에서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드디어 지금까지 배운 산만한 지식들을 정리하기 위해 삼각산 불교통신대학에 입학하여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전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어서 학교에 불교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연합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지도 선생님과도 친척 유대를 갖게 되었다.

총지중 정각사에서 나가서 자성학 생활을 수련 지도하면서 교리발표회, 불교 전시회를 개최한 것도 잊을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총지 11년 여름, 밀양 영남루 앞 발생법회 때 정각원 주교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불교청년회를 하면서 총법사 자격을, 조계종 총무원장의 전법사 자격을 품수한 아우 우리 총지중 자식사 청년회를 지도하게 되었는데 뒤에 성화사 청년회와 결합하여 자성청년회가 됨으로 해서 성화사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88년도에는 한국방송대학에 불교학사학을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지도했는데, 동래 온천정 학사가 화병동으로 옮겨지면서 거리도 멀고 지지도도 하여 13년을 지도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한국방송대학생들은 같은 과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대학문화에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불교

학생회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전시회나 운동회나 정기법회 외의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그 뒷바라지가 힘들었던 반면에 보람 또한 컸다.

내가 그들에게 강의한 것을 매번 소식지에 정리하여 실게 되었는데 어느 학생이 책으로 묶어내자고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94년도에 출판한 것이 "교해를 건너는 뗏목"이라는 책이며, 당시로서는 개인의 강설집을 찾아볼 수 없을 때라 내가 이 책을 출판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회고와 반성

내가 이렇게 불교 그리고 불교 학생들과 함께 걸어온 행로는 남다른 뜻과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때문이기도 하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배움을 받아 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용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 황혼에 서서, 내가 불교와 함께 걸어온 인생행로를 돌아다본다. 젊은 나이에 한 동안 내가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면서 방향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불교 즉

밀교라는 제자리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일시적 외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몸은 일시적으로 불교를 떠나기도 했고 밀교를 떠나 현교를 떠난 적도 있지만 결코 마음만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본다면 밀교에서 출발하여 다시 밀교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마음만 조급해서 느닷없이 불교 교단에 뛰어올라 학생들을 지도한 담士도 검토 없이 떠돌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내 불교 인생! 학생들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면서 구업을 많이 지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기 수행은 게을리 하면서 남 앞에 겉 없이 나선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며, 속된 강점처럼 허약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대로 치열하게 걸어온 지난날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자위와 회개에 젖어본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난날의 작은 인연으로 우리 총지총단에서 부족한 자를 종립학교 교장으로 영입해 주신 코신 은혜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 큰 은혜는 백골난망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다.

〈끝〉

학생운에

바다

동해중학교 2학년 1반 김재원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푸른 물이 너울거린다.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딜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다.

발밑에 게가 기어 다닌다.

아무래도 여긴 바다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이런 바다에 와 있는 걸까?'

갑자기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사람인가?' 사람이다. 30~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이다. 무언가 말하고 있다. 그 뒤에는 남자와 비슷한 나이인 듯한 여자가 놀란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다.

그 옆에 한 어린 소년이 웃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몸이 젖어 있다. 남자의 몸도 젖어 있었다. 나는 구멍조끼에 튜브까지 끼고 있었고 입으로는 짠맛이 느껴졌다.

그 때, 머리 속에 무언가가 스쳐가는 듯 하더니 모든 것이 생각이 났다.

나는 김재원이었고 저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저 놀란 표정의 여자는 나의 어머니이고 그 옆의 남자는 아이는 나의 동생이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에서 2~3바퀴를 빙글빙글 돌아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었다.

나는 입에 잔맛을 느꼈고 눈이 따가워 읊을 느꼈다. 귀가 멍멍했고, 몸이 따가웠다.

나는 그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다.

2002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바다에 갔다가 앞에 말한 이 쓰린 추억을 만들었다.

그 뒤로 나는 바다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번 해양훈련은 매우 기쁘었지만 별로 내색하지 않았고, 반 친구들과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재미있었던 척을 했다. 바다가 무섭다기보다는 싫다.

바다를 한때 좋아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놀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바다 아닌 계곡으로 갔다.

지금 나에게 바다란 무엇인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바다는 나에게 조금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나에게 잠깐 정신을 빼앗겼던 바다가 나는 싫다.

그래도 바다는 한번 겪어보면 좋은 친구 같은 존재로, 내가 살면서 바다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내 옆에 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한다.

특히 내륙 지방에 살면서 바다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싶어 한다.

어쩌다 바다를 보면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도 받을 것이다.

나 역시 바다가 좋았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도 즐기고 바다를 가까이 해 있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쓰러린 경험을 하고부터는 바다가 싫어졌다.

다른 사람에게 바다가 어떻게 느껴질지 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싫은 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쯤 다시 바다를 좋아하게 될까.

(편집자 주)

충지동의료보

골다공증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골다공증은 골 용적당 골 성분이 감소되는 현상이며 쉽게 말해 뼈의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서 뼈가 부스러지고 마치 구멍이 뚫려있는 스펀지처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뼈가 골절되고 또한 쉽게 낫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심장과 뼈를 감싸고 있는 흉곽의 뼈까지 충격으로 부러져 내부 장기를 다치게 하므로 생명이 지장을 주게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골다공증에 걸리

기가 쉬우며 폐경 이후 여성의 30%정도가 골다공증을 겪게되고 고령인 경우에는 여성의 30~40%, 남성의 10~20%에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상으로 보행이 어렵거나 생명이 지장을 받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골다공증은 골위(骨痿) 또는 골비(骨痺)에 해당됩니다. 뼈는 신(腎)에 속하고 신(腎)에 보관된 선천의 기(先天의 氣)는 폐경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타고난 정혈(精血)을 모두 소모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증상들은 대부분이 신장의 수기(水氣)로 부족해 상대적으로 화기(火氣)가 위로 상승하므로 요통이나 골절, 신장의 감소 외에도 사혈감이나 가슴

답답, 두통, 안구건조, 목마름,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는 신허증(腎虛症)과 신수부족(腎水不足)으로 보고 주로 신수를 보충하고 위로 상승한 화기(火氣)를 조절하게 되며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갱년기증상에도 좋은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 육미지황탕, 지백팔미환, 우유골, 당귀보혈탕, 귀비탕 등의 처방이 활용되며 약제로는 두충, 용골, 모래, 구판, 별갑, 아교 등 단미나 차로 음용할 경우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 사춘기 이전에 칼슘의 섭취를 충분히 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에 우유를 충분히 마시고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충분한 칼슘의 섭취와

적절한 영양, 규칙적인 체중부하운동, 흡연과 과다한 음주의 금지 등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추처럼 실내용이 많고 스포츠를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하루에 햇빛을 보는 양이 부족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30분 정도는 햇빛을 보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고 너무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운동을 거의 매일 같은 강도로 유지해 주시고 복잡한 기구와 많은 공간이 필요 없이 혼자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에어로빅이나 헬스, 런닝, 조깅, 밀기, 당기기, 굽히기, 펴기 등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고 매일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와 채식을 위주로 하며 몸에 좋다고 신신한 과일과 야채만 먹게되면 영양부족이 생기게 되므로 자신의 신장에 맞게 유지하며 지방질과 당분, 인스턴트 등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작약, 당귀, 매밀, 팔, 참깨, 인삼, 검은콩, 검은깨, 홍화씨, 현미, 당근, 마늘, 부추, 우엉, 버섯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단기에 치료될 수 없으며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므로 꾸준히 치료하고 골절을 예방하며 장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생활로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경단(子經丹)
총상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기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대),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악 요법(자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아TV '전문의 상담'



풍경소리

진정한 보시는

웃음을 짜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탁발을 하시는 부처님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실타래 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 주십시오."

보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배풀고 받으며,
배풀었다는 마음도 받았다든 마음도 없을 때
진정한 보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관성(풍경소리 후원회장)



실타래를 받아 드신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입고 있는 가사를 벗어 들고는
실타래의 실로 예전 곳을 꿰매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탐욕스럽고 인색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대는 다섯 가지 큰 보시를 행할 수 있는가?"
"저는 쌀 한톨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큰 보시다. 그대는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는 일이니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큰 보시인데 행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으니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이용범(소설가)

이달의 사진 여보게, 진언 수행이란 말이야.....



사진= 조계사 김중열기자



내용참조: "불교총전" 251p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테에 비유
하고 그 모테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
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
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
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
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
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
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점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
습니다



- ※ 구성표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재가불자의 오계준수와 그 현대적 의미

불교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계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특히 재가자의 오계는 불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은 오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오계의 준수를 가버려 여기면서 오히려 불교의 더욱 심오한 경지를 추구하는 수행법

만 찾아다니고 불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가승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계조차도 변변히 지키지 못하면서 감히 불제자를 자처하고 출가승임을 내세워 재가불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여기에 더하여 대승불교라는 명목으로 오계의 파계를 오히려 당연시하는 풍조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술을 꼭차라고 하여 거르림 없이 마신다거나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어떠한 행위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계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

의 근저에나 갈 수 있겠는가? 오계는 불교의 게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것 없이는 불교의 수행은 한 걸음도 전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오계는 불제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윤리 덕목이다. 사회의 온갖 분란도 이러한 오계의 준수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생긴다. 살인, 강도, 강간, 횡령, 절도, 음주 사고, 마약 밀매, 뇌물 수수, 도박 등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의 대부분은 이러한 오계를 준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계는 출가자는 물론 불제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엄수해야 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항목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오계를 수지하면서 과거처럼 좁은 의미의 단순한 게 조항을 준수한다고 자만하거나 방심을 해서서는 안된다. 사회가 변화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오계의 해석에 대해서도 더 폭넓고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계를 지키는 것은 한 개인의 완성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계를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서 만족한다면 게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흔히 쓸 사라고 하는 출가자들 중에는 오히려 인간미가 부족하고 지혜와 자비심이 부족

하여 옆에 가까이 두려운 경우를 더러 본다. 그런 것은 지혜에 대한 경직되지 않고 방식이 틀려 온 때문이다. 계는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며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출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가불자들은 계를 지킴에 있어서도 대승의 보살정신을 잊지말아야 한다. 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 연마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재가불자는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생들 가운데서 불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살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흠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사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화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된다.

이처럼 오계의 근본정신은 첫째는 자신을 지켜 성불에 이르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가 계를 지킴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재가불자가 오계를 통하여 아담답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 두 번째 미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켜야 하겠지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일반사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가 우

리 스스로 오계를 수지하여 사회의 모범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의 오계는 불교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불교의 오계도 어느 한정된 시간이나 지역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불자들이 오계를 지키는 것은 불교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오계의 실천이 없이 불제자임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불자들이 스스로도 오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오계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윤리 덕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자들은 이를 일반 사회에까지 확대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더구나 재가불자는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오계를 알리고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계의 준수와 이의 사회적 확대는 불법실천의 기본이면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된다. 오계 제정의 근본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에 맞는 오계의 폭넓은 해석과 실천을 통하여 불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이웃에 확대해 나가야 할 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별 지구에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수도승에서 재가불자로 전향하다

페드로 고메즈 이글레시아스(스페인 카마 까꾸협회 회장)

나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가톨릭 수도자였고 서품을 받았다. 나중에 로마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서 수도원을 떠났고 그 후 20년 뒤에 불교를 만났다. 스페인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철저한 가톨릭 국가이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자유 같은 것은 없었다. 프랑스 장군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고, 성당은 정부와 공동 직업을 약속했다. 사실 성당은 나라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 살 때 500명의 아이들과 함께 Agustín 수도원에서 생활했는데 우리의 삶은 기도와 공부로 이뤄졌고 우리가 거기서 들은 모든 것은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들을 세례시켰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신조를 가르쳤다. 여성은 천국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리고 유혹의 관문(?)이었다. 관능성은 우리에게 죄악시 되어서 어머니나 누이에게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금지됐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우리를 마음에 얹어있던 생각이었다. 우리들의 수

행은 항상 지옥을 묘사하거나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묘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몇몇 친구들은 천국에 관한 환영을 느끼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변비와 고열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겪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갈등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심리적인 감정과 물리적인 문제들을 조절하는 방법이 나 설명이 같은 것은 없었다. 나중에 내가 불교를 만났을 때 나는 그 것들을 조절하고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법들은 오랫동안 경험되었던 것이고 또 논리적인 설명도 가능했던 것이었다. 나는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개념과 구약성경의 논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리는 절대 의문을 가져서는 안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했기 때문에 분석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것을 금지시켰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전 우주와 생물의 창조주가 어떻게 지

옥 같은 것을 만든 것인지 등이 비논리적으로 보였다. 만일 신이 무한히 현명하고 힘이 있고 선하고 동정심이 있다면 왜 나를 만든 것일까? 난 아마 죄인이 돼서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이다. 만일 그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안다면, 그는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걸 알 것이다. 신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그 길에 있는 천사가 자기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은 바로 지옥을 만들었으며 그를 그곳에 보냈다. 이러한 논리와 생각들이 나에게 계속 붙는 의문으로 다가왔다. 나의 이러한 의문들을 동료들은 수도원장에게 보고했고 수도원장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허락을 얻어 수도원을 나왔고 1972년에 결혼했으며 외직업을 시작했다. 불교를 알고부터 나는 더 이상 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 만약 신이 있어도 관할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실존주의와 허무주의가 있던 없든 문제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마음속에 문제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믿었

고 직장 속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티베트 불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책에 쓰여 있는 것까지 명상하고 노력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나는 어떤 경험을 했다. 나는 수도원에서의 10년 동안의 명상에서 하나도 느낀 게 없었던 여기서는 마음의 질을 느꼈다. 우리는 명상 체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우리가 라마 지도 하에 처음 명상을 시도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었다. 불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마음이 우주와 같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도파치는 없었다지만 라마가 가르침을 준 순간 나는 내

마음과 붓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매일 명상하기 시작했고 명상의 축복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붓다의 방법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 잡념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자연적

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없애준다. 붓다는 자비와 지혜를 말했고 그 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해탈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예수의 가르침과 동경부여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Lay Buddhist Forum ;LBF)를 마치며

불교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이번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여러 모로 뜻이 깊다. 우선 이러한 유형의 재가불자대회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며 이러한 대회를 5회까지 존속시켰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열악한 인적 물적 지원과 대다수 재가불자의 무관심 속에서 세계속의 재가불자 지도자들을 상대로 총지종이 이러한 대회를 5회나 유지했다는 것은 한국불교사는 물론 세계불교사에서도 획기적인 일이라 자부할 수 있다. 재가불교, 생활불교의 철학과 실천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자비로 먼 곳에서 와서 4일간의 땀땀한 일정을 소화하고 총총히 돌아가는 모습에서 향후 전 세계적인 재가불교 운동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았다. 지금과 같은 격변하

는 정보화 시대의 불교는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는 불교라야 하며 그 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재가불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해 대회와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참가자수가 20명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40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종단 내의 젊은 정사들이 참여하여 총지종의 시각에서 재가불교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회도 제공됐다. 대회의 주제는 순단불교와 재가불교였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나왔으며 서로의 활동과 소속 단체, 그리고 그 나라의 불교 현황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다른 나라의 불교를 살펴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스페인이나 부탄의 불교, 그리고 네팔의 네마리 불교, 태국의 아소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은 이번 대회가 아니었으면 얻어듣기 어려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회는 템플 스테이와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를 곁들여 대회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발표자가 많이 두 반으로 나누어 발표를 했다. 시간만 충분했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함께 들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향후에는 녹화를 통하여 발표된 의견을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거의 일방적인 발표에만 그치고 질문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잠깐 동안의 휴식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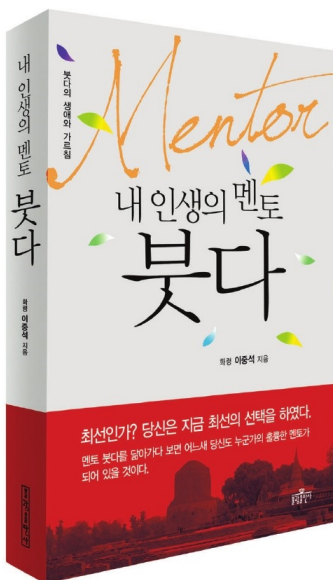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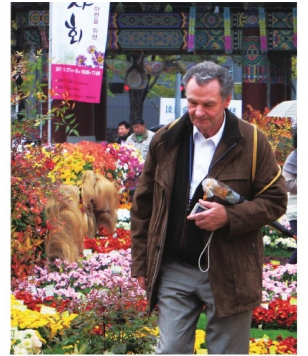
나 속속에서의 환담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거의 매년 참가하는 분들, 혹은 격년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은 이 대회의 매력에 대변해 주는 것이다. 형식에 치우친 다른 불교대회와는 달리 이 대회의 참여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참가자들 대부분의 높은 대성과 지적 수준, 그리고 불교의 수행으로 다듬어진 완숙한 인격은 이 대회의 품위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운영위원회가 폭넓게 구성되고 향후 이 대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기틀 마련이 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좀 더 탄탄하고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될 것이다. 이

번에 우리 쪽에서 명예회장이 추대된 것은 우리 총지종이 발기인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이 대회를 성실하게 이끌어 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며 향후 장구하게 우리 종단이 국제재가불교대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내년 제 6차 대회는 스페인에서 열리게 되는데 종단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되며 한국 측 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재가불자 연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실재적인 재가불교실현 운동에 돌입할 시기가 도래했다. 재가불교, 생활불교를 확산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확고히 하고 재가자로서의 불교 실천에 대한 바른 견해를 심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불교는 재가불자들이 각성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출가와 재가의 한계를 초월한 생활불

교로서 불조의 해명을 이룰 것이다. 다양한 생활불교 운동을 통하여 모든 불자들이 바른 불교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는 내면의 행복을 찾고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화목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회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 중심에는 우리 총지종이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가불교종단 이면서 생활불교를 표방해 온 우리 종단이 명실상부한 재가불교 운동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젊은 불자들의 교회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대회에 동참해 주신 내외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이 대회를 지지해 주신 종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성원해 주신 재가불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11년 국제재가 불교지도자 대회

- 부처님의 진리속에 형제로 다시 태어나다 -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자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을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알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